

SK케미칼, 생산직 우수사원 해외연수

SK케미칼(대표 김창근)은 생산직 우수사원 20여명을 선발해 해외연수를 보냈다고 6월28일 발표했다.



SK케미칼은 1991년부터 울산공장 등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사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왔고 현재까지 혜택을 받은 직원이 400여명에 이르고 있다.

2012년에는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중 근무성과가 뛰어난 직원을 선발해 SK차이나 등 해외사업장을 견학시키고 베이징(Beijing)에서 중국문화를 체험토록 6박7일 일정으로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김창근 부회장은 “사람은 SK케미칼이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”라며 “임직원이 일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보람을 느낄 수 있

도록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SK케미칼은 우수사원 해외연수 외에도 국내외 MBA(경영학석사)과정 이수 지원, 미니 MBA 개설, 인문학 강의 등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12/06/28>